

Vibrato in the Northwest Folksong 'Sushimga'

Oh, Yong-nok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ic College)

<Abstract>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examine the vibrato employed in the northwest folksong 'Sushimga.' There are generally three main types of vibrato employed in northwestern folksong: moving above and below the main note, rising from below the main note, and coming from above the main note. The characteristic vibrato style in 'Sushimga' is that of the second type described above, rising from below the main note. If you take the series of notes in the line 'Sug-im', you can see that from above the fundamental tone of the melody the notes then dip beneath this tone to create the vibrato: $g\flat - c\flat - b\flat - a\flat$. A raise in the central melodic series by two degrees is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a\flat - f - c - b\flat$. Namely, you can see from the description above the typical melodic series in the *ujo* mode family.

While the article delves closely into an examination of the vibrato techniques used specifically in 'Sushimga,' I also explore the difficulty of both describing and prescribing performance techniques using conventional notation methods. I contend that the vibrato techniques employed in a performance of 'Sushimga' can best be described with the collaborative use

of standard notation and computer graphs. Likewise, similar use of notation and graphs can communicate proper performance techniques to those learning the folksong via notation. Such an examination of the vibrato in '*Sushinga*' can communicate the centrality of vibrato to the performance of this northwestern folksong.

수심가의 요성

오용록 (서울대 국악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서도민요 수심가의 요성에 대한 외부 관찰을 수행하는 것이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음원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뒤 이 자료를 세 사람의 악보와 비교하며 수심가의 요성을 살펴보겠다. 대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요성에 대한 외부 관찰은 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한 관찰을 말한다. 관찰을 통해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후 이어서 이 내용을 전승자의 전승 정보와 결합하면, 즉 전승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면 이 노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때 서도민요에 내재된 음체계, 이에 대한 전승자 또는 수용자의 인식체계 같은 것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는데, 이 글은 그런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전승자 또는 수용자의 인식체계는 이들의 채보와 기보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보를 통해 나타나는 인식체계가 곧 내재된 체계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 앞으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글은 그런 논의를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수심가에 대한 훌륭한 선행연구가 있어 먼저 이 글을 통해 수심가의 구조와 선

을 유형을 개관하겠다.¹ 다음, 음원과 가창자 본인의 악보와 이 음원에 대한 오선 악보(백대웅 채보)가 있는 김정연의 수심가를 분석대상으로 택하여 음향분석 프로그램 praat로 분석하겠다.² 이 분석 결과를 백대웅의 오선보, 우해인의 그림악보, 김정연의 그림악보와 비교하며 수심가의 요성을 살펴졌다.

2. 수심가의 구조

우해인은 수심가 141곡을 분석하여 수심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1장	제1대대강		제2대대강	
	제1대강	제2대강	제3대강	제4대강
사설1	인생이	살내는	기백년	사나
사설2	약사	몽촌으로	행유 적	어면
선율가변성	기변		불변	

2장	제1대대강		제2대대강		
	제1대강	제2대강	제3대강	제4대강	제5대강
사설1	한백년	붓살결	번민이	도	구 나
사설2	문전	석로가	반성사	보구	나
선율가변성	기변		불변		

¹ 우해인, “수심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우해인은 대전에 거주하는 서도명창 박기중(1928~)에게 서도민요를 5년 이상 배우고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² 『뿌리깊은나무 판도소리』(서울: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1984)의 ‘평안도 소리’(JLS1201875)에 수록된 수심가들 음원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해설집 69쪽의 사설과 62쪽의 백대웅이 채보한 악보를 인용했다.

김정연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5살 무렵에 김철성에게 서도소리를 배웠고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71살이었던 1983년에 이 수심가들 녹음했고 1987년에 작고했다. 저서로 『西道소리大集』(서울: 경원각출판사, 1979)이 있는데, 이 책 126쪽의 악보를 인용했다.

praat는 windows ver 5.1.23과 MacOS 9 edition을 사용했다.

3장	제1대대강		제2대대강		
	제1대강	제2대강	제3대강	제4대강	제5대강
사설1	어젯밤	꿈속에	보이던	그님	은
사설2	생각을	허니	남의화용이	그리워	
선율가변성	불변		불변	불변	

제3대대강		
제6대강	제7대강	제8대강
왜아니	-	보이 나
나어	이	할까요
불변		

이렇듯 수심가 한 곡은 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의 제1대대강은 1장의 제2대대강과, 3장의 제2대대강은 2장의 제2대대강과 선율형이 같다.

1장의 제1대대강과 2장의 제1대대강, 드물게 3장의 제2대대강 중 제3대강은 선율이 바뀔 수 있다. 김정연은 「뿌리깊은나무 판도소리」의 수심가를 녹음할 때 3절까지 불렀는데, 1절 '약사'는 '숙임'으로, 2절 '자규야'는 '평'으로, 3절 '일락'은 '지름'으로 1장을 노래하여 대표적인 선율형을 모두 소개했다. 2, 3절의 2, 3장은 1절의 2, 3장과 선율이 거의 같다.

우혜인은 수심가 141곡을 분석할 때 그림악보를 사용하였다. 악보는 모두 5줄로 되어 있는데 첫 줄은 ㄴ, 둘째 줄은 ㄷ, 셋째 줄은 ㄹ, 넷째 줄은 ㅁ, 다섯째 줄은 ㅂ로 읽어 상대 음정을 나타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심가의 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수심가의 요성

1) '숙임' 1장 제1대대강의 제1대강

아래 악보의 첫 단은 '백대옹보', 둘째 단은 '우혜인보', 셋째 단은 '프라트보', 넷째 단은 '김정연보'이다.

약 사 아 아

인생야

2000

210

M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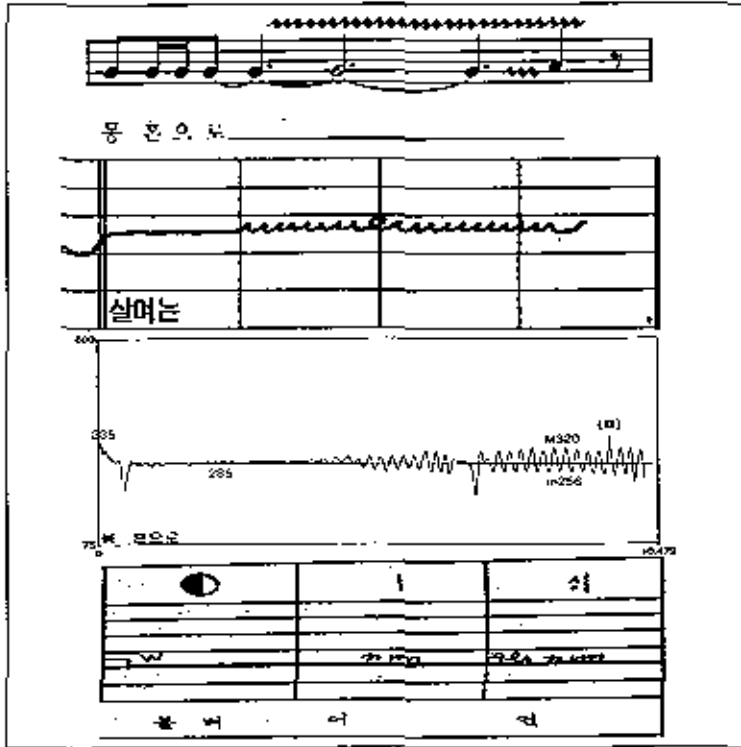
m1795

200

강 가 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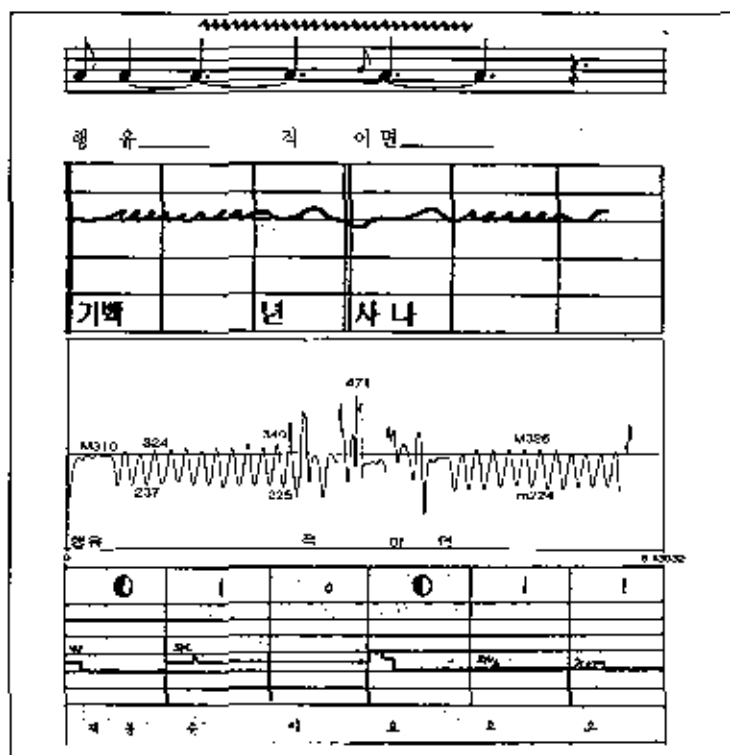
- ‘사’를 죽 췌다가 위아래로 떠는데, 떠는 폭은 가장 클 때에 위로 약 300 cent, 아래로 약 300 cent의 고른 요성이 있다. 중간에 한번 ‘감는다’.
- 210 Hertz는 ab(207.65 Hertz)에 가까운 음이다.
- 프라트보의 M은 Maximum, m은 minimum의 약자이다.
- 김정연보의 w는 ‘들어내는표’, k은 ‘코음비청표’, e는 ‘감는표’이다.

2) '숙임' 1장 제1대대강의 제2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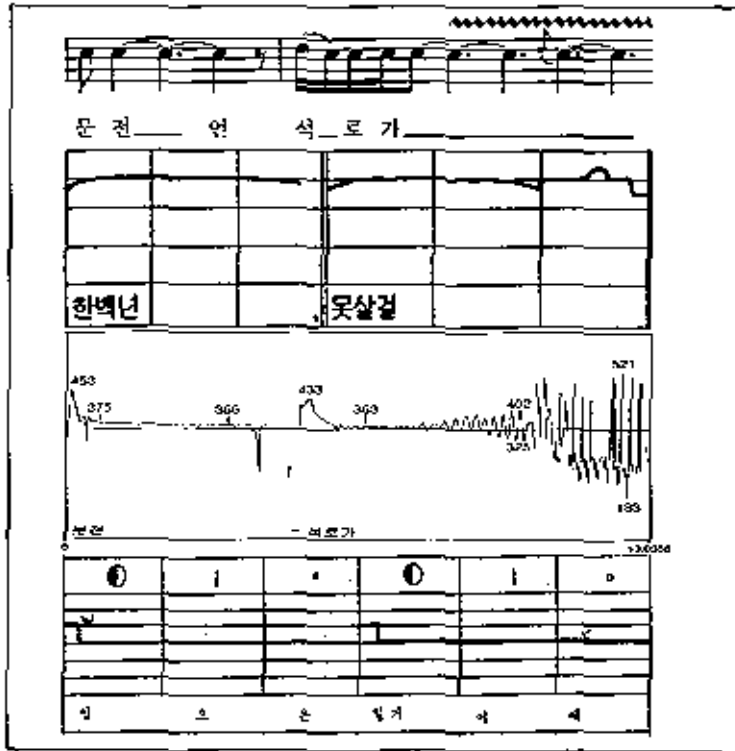
- '로'를 쭉 뻗다가 위아래로 떠는데, 떠는 폭은 가장 클 때에 위로 약 200 cent, 아래로 약 185 cent의 고른 요성이다. 중간에 한번 '감는다'.
- 285 Hertz는 db(277.18 Hertz)과 d(293.66 Hertz)의 중간음이다.
- '몽'을 쳐줄 때의 335 Hertz는 285 Hertz보다 약 280 cent 높다.
- 김정연보의 n m은 '자꾸떠는표'이다.

3) '속임' 1장 제2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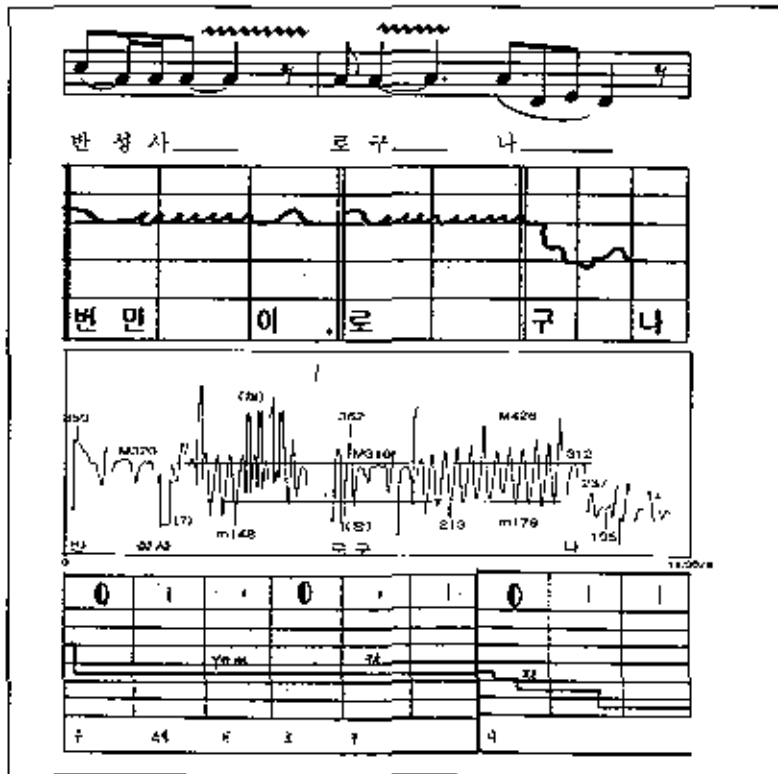
- 어단성장(語短聲長)에 의해 '행유'를 빨리 붙여 노래한다. 따라서 '행'을 떨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 음이 본래 갖는 음높이를 알 수 있다.
- 첫음 310 Hertz는 eb'(311.13 Hertz)에 가깝다. 이어서 '유'를 아래로 떨어 주는데 237-324, 225-340 Hertz로 떠는 폭이 커진다. 약 540, 714 cent로, 완전4에서 5도의 음폭을 갖는, 아래로 떠는 요성이다.
- 심하게 목을 쓰는 '적'과 '이'를 거쳐 '먼'도 다시 아래로 떠는 요성이다.
- 김정연보의 <는 '찍는표'이다.

4) 2장 제1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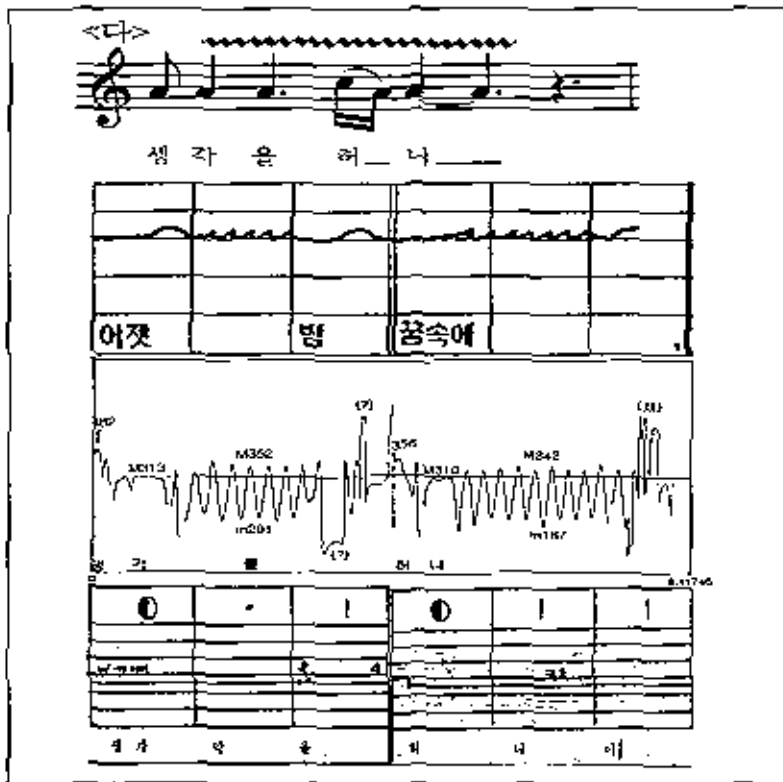
- 1대강의 '전'은 죽 뻗는다. 2대강의 '로가'는 뻗다가 위로, 이어 위아래로 뻗다가 가성을 쓰는 현란한 목으로 이어진다.
- 375, 366, 363 Hertz는 g_b (369.99 Hertz)에 가깝다.
- 앞에서 쳐주는 '문'과 '석'은 453, 433 Hertz로, 이는 각각 다음 음파 372, 363 cent에서 단3도와 장3도의 중간쯤 위의 음이다. 이처럼 말 댕이리의 첫 음절에는 대개 강세가 온다.

5) 2장 제2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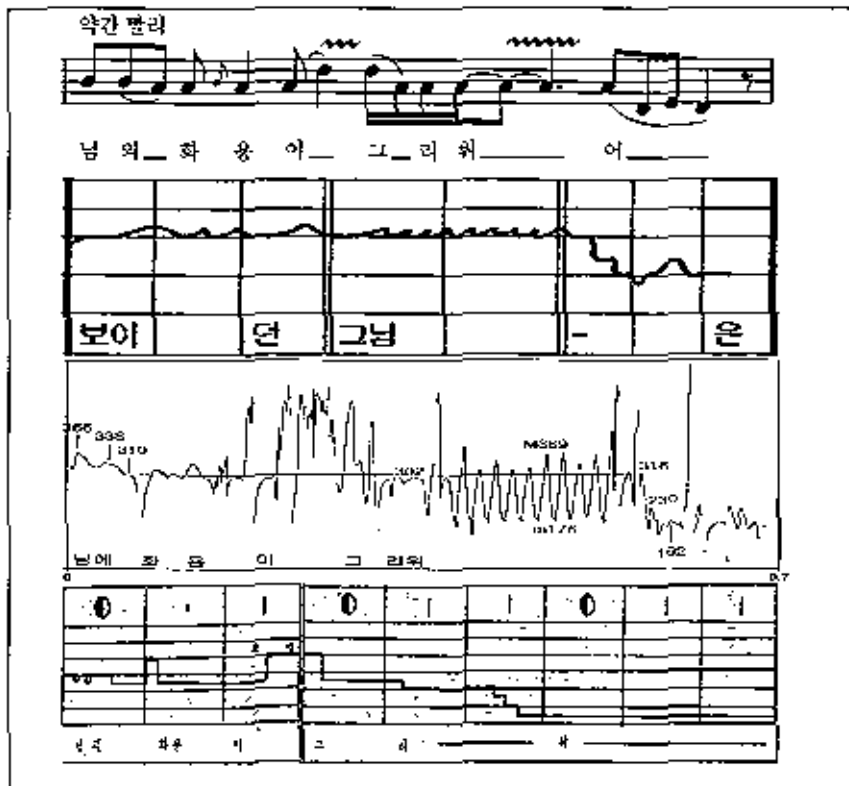
- 1대강의 ‘바’안, ‘성’과 2대강의 ‘구’는 아직 요성에 들어가기 전의 음높이를 보여준다. 320, 310 Hertz는 eb'(311.13 Hertz)과 가깝다. 이어 ‘사’와 ‘구’는 아래로 떠는 요성이다. 1장 제2대대강의 아래로 떠는 la(林)의 최저 음높이가 224 Hertz였던데 반해 2장 제2대대강의 la(林)는 아래로 더 깊게 떠난다.
- 앞에서 쳐주는 ‘반’과 ‘로’는 359, 362 Hertz로, 이는 각각 다음 음보다 약 200, 268 cent 높은 음이다.
- 제3대강 ‘나’의 312, 237, 195 Hertz는 eb'(311.13), bb(233.08), ab(207.65)에 가깝다.

6) 3장 제1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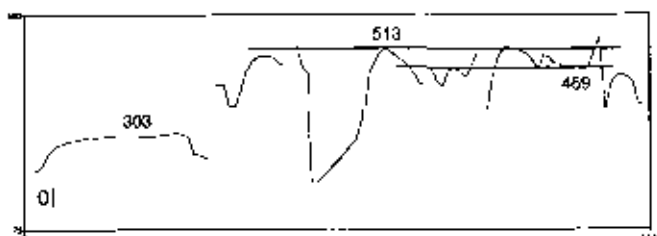


- 아래로 떠는 요성이다. 단, 1장 제2대대강과 비교할 때에 요성의 폭이 훨씬 크다. 1장의 경우 음폭이 가장 클 때에 225-340 Hertz의 714 cent였는데, 3장의 la(林)는 201-352, 187-342 Hertz여서 각각 970, 1045 cent가 되어 요성의 폭이 매우 크다.
- 313, 310 Hertz는 eb'(311.13 Hertz)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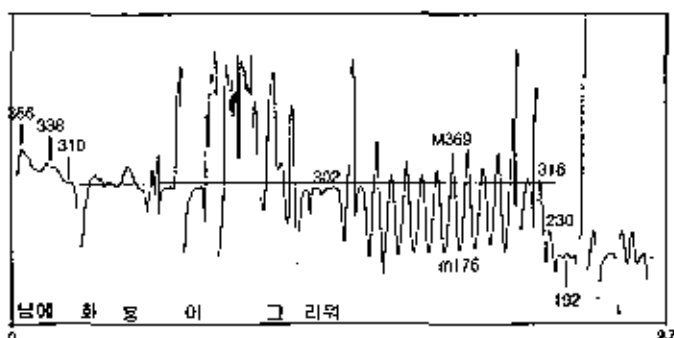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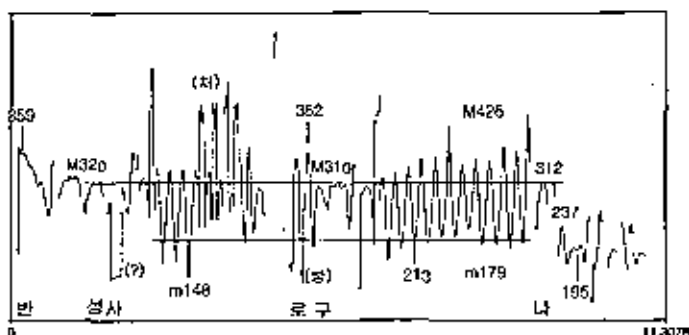
7) 3장 제2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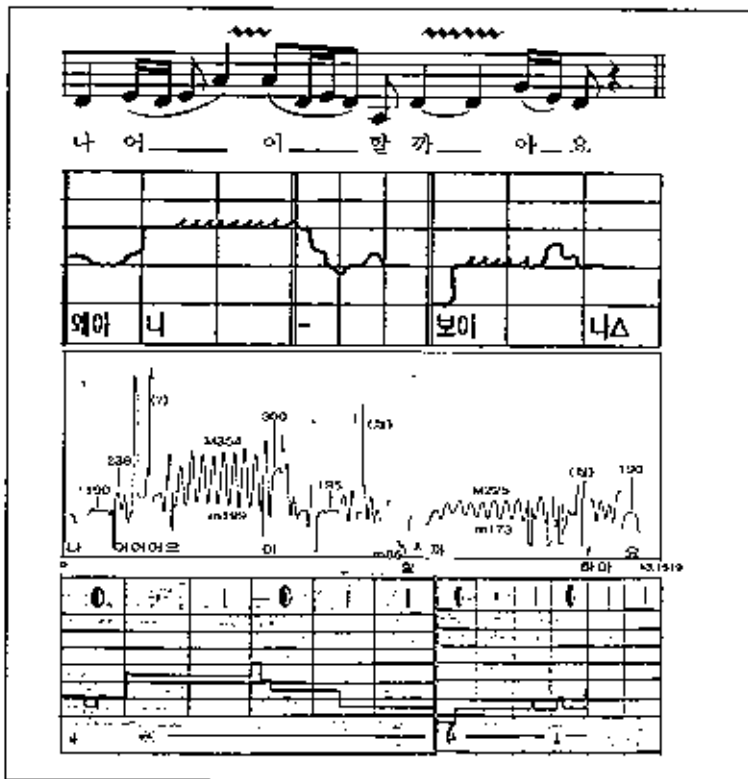
- 여기에는 두 번의 요성이 있다. '이'와 '워'의 요성인데, '워', 즉 la(林)의 요성은 176-369 Hertz로 약 1280 cent의 음폭이어서 바로 앞 3장 제1대대강의 음폭보다도 더 폭이 크다.
- '이'는 요성이라기보다는 기교적으로 목을 쓰는 것인데, 음높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469 Hertz는 bb(466.16)에 가깝다.



- ‘님’과 ‘에’는 각각 366, 338 Hertz로, 이는 각각 다음 음보다 약 287, 150 cent 높은 음이다.
- 제3대강의 316, 230 Hertz는 eb'(311.13), bb(233.08)에 가깝다. 하지만 192 Hertz는 ab(207.65)보다는 g(196.00)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청이 반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우혜인의 연구에 의하면 3장의 제2대대강은 2장의 제2대대강과 기본형이 같다고 했다. 프라트보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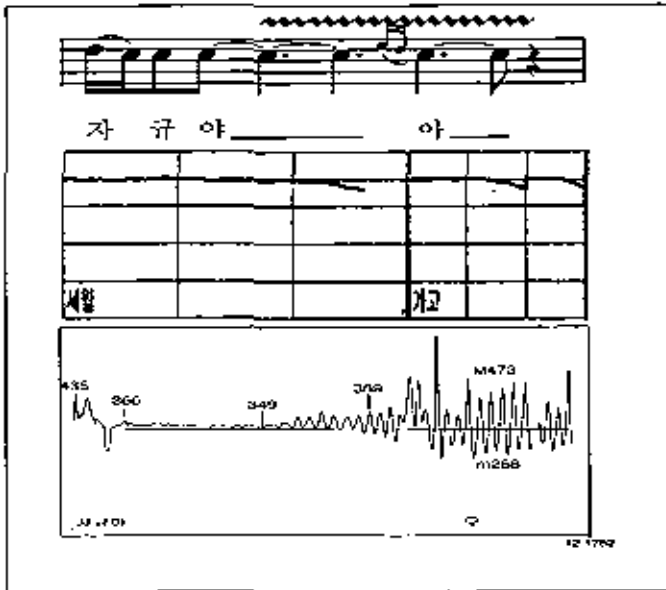


8) 3장 제3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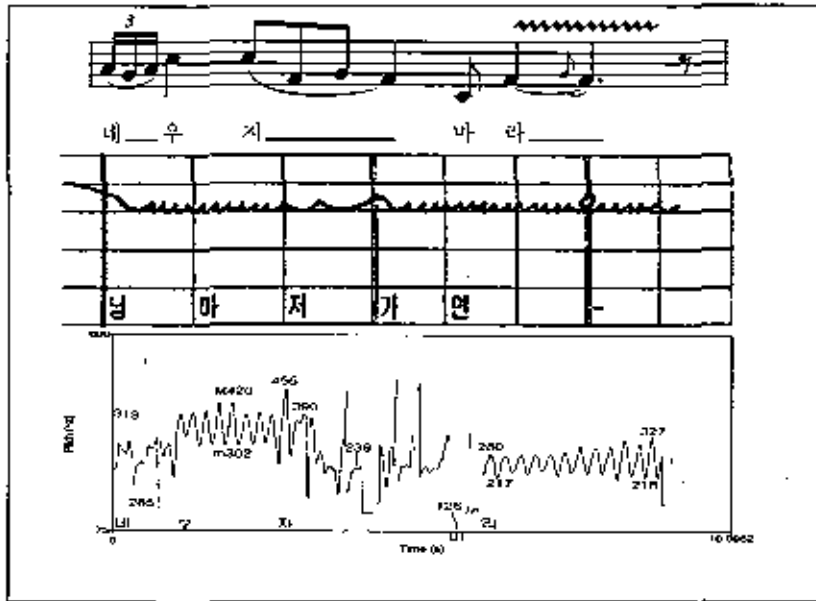
- 여기에는 두 번의 요성이 있다. '어'와 '까'의 요성인데, 둘 다 바로 음을 떨기 때문에 본래의 음높이를 알기 어렵다. (떠는 음 자체가 본래의 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에 나온 요성음과 비교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의 3장 제2대대강의 la(林)의 요성은 176-369 Hertz였고, 1장 제1대대강의 re(黃)의 요성은 176-250 Hertz였다. 따라서 '어'와 '까'는 각각 아래로 떠는 la(林)와 위아래로 떠는 re(黃)임을 알 수 있다.

9) '땡' 1장 제1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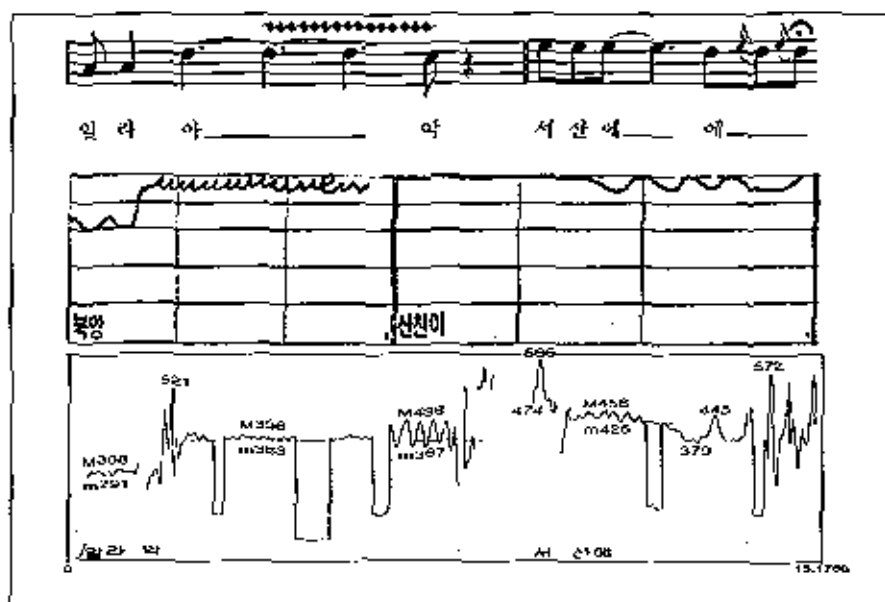
- '야'를 쪽 뺏다가 위로 편다. 이어 어려운 목을 한번 쓰고 '으'를 위아래로 격렬하게 편다. 위로 뺏 때에는 약 187 cent의 쪽이 되고, 위아래로 뺏 때에는 약 980 cent의 쪽이 된다.
- 349 Hertz는 f(349.23 Hertz)다.
- 시작음 '자'는 435 Hertz까지 올라가 '야'의 366 Hertz보다 약 300 cent 높다.

10) '평' 1장 제2대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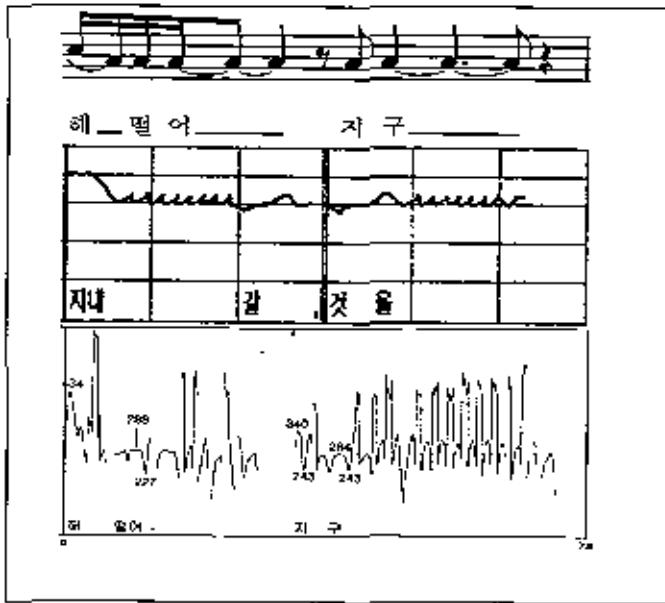
- 여기에도 요성이 두 번 나온다. '우'와 '라'의 떠는 음이 그것인데, 앞서처럼 잠시 머무는 음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음을 (만약 있다면) 알기가 어렵다.
- 이런 경우에는 편사의 인식에 인상적으로 전달되는 음을 대표음으로 보기로 하겠다. '우'는 302-420 Hertz 사이를 떠는 요성인데, 약 570 cent의 간격이고, d'(293)와 a'(440) 사이에 있다. 이중 대표음으로 들리는 음은 건반으로 확인할 때에 f(349.23)에 가까운 음이다. (이 f는 앞의 제1대대강에서 뺄는 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는 위아래로 떠는 요성이 된다.
- '라'는 217-280 Hertz 사이를 떨고, 이는 약 440 cent의 간격이며, ab(207.65)과 d'(293.66) 사이에 있다. 이중 대표음으로 들리는 음은 c'(261.63)에 가까운 음이다. '라' 역시 위아래로 떠는 요성이 된다.
- '지'의 꾸밈 다음의 239 Hertz는 bb(233.08)에 가깝다.

11) '지름' 1장 제1대대강



- 제1대강의 끝 부분에서 367-438 Hertz, 즉 약 300 cent 북의 위로 떠는 요성이 있다.
- 291-308 Hertz(98 cent), 383-396 Hertz(57 cent), 426-458 Hertz(125 cent)의 잔잔한 요성이 있으나 특별히 '요성'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 잔잔한 요성의 경우 가운데 수치를 제음으로 잡았을 때에 '일라'는 300 Hertz로 d'(293.66)에, '악'은 390 Hertz로 g'(392.00)에, '산에'는 442 Hertz로 a(440.00)에 가깝다.

12) '지름' 1장 제2대대강



- ‘어’의 288 Hertz는 d'(293.66)에 가깝다. 이후 매우 기교적인 복음 써서 노래한다.

5. 맺음말

서도민요 수심가의 요성에 대한 외부 관찰을 시도해 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성은 선율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심가의 골격음 위에 표기하였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수심가' (Suseomga) in staff notation. It consists of five staves, each with a different instrument part and lyrics written below.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staves are labeled as follows:

- 1장 (1st staff): 속임 (Suseom) with lyrics: 위아래 위아래 아래
- 2장 (2nd staff): with lyrics: 약사 몽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 석로가 반성사 로구 나
- 3장 (3rd staff): with lyrics: 생각은허니 남의화용이 그리워 나어 이 합께요
- 4장 (4th staff): 평 (Pyeong) with lyrics: 작곡야 네우 지 마라
- 5장 (5th staff): 거금 (Geokum) with lyrics: 일타 서산에 책편어지구

요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위아래로 떠는 요성’, ‘아래로 떠는 요성’, ‘위로 떠는 요성’이 그것이다. 특정음에 특정 요성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평’ 1장의 제2대대강에 대한 선율 해석이 쉽지 않지만 요성을 살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중 수심가를 수심가답게 하는 요성은 ‘아래로 떠는 요성’이다. 위의 ‘속임’의 선율구성음을 위에서 아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b' - eb' - bb - ab

이 구성음의 음렬을 2도 올리고 올병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ab' - f' - c' - bb (仲 - 太 - 簡 - 徹)

즉, 우주 가곡에서 익숙한 음렬임을 알 수 있다. 하규일은 이중 태를 ‘중성(中聲)’, 侏를 ‘하성(下聲)’이라 분렸다.³ 이 예에 따라 앞의 수심가의 eb'을 ‘중성’, ab을 ‘하성’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수심가는 ‘중성’을 아래로 깊이 띈다. 노래 처음에는 4, 5도 정도 아래로 떨지만 노래의 후반부로 가면서, 즉 감정이 격해지면서 요성은 옥타브까지 깊어진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³ 장사훈, 『최선국악총론』(서울: 새광음악출판사, 1985), 66-68쪽.